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국민과 상생하는 국가유산,
높아지는 국민행복 -

2025. 1. 21.



국가유산청

순서

I.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1
II.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
III. 2025년 핵심 추진과제	4

I.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1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

- 「문화재보호법」체계를 「국가유산기본법」과 유형별 법체계로 재편
- '문화재(財)' 명칭을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하고 ▲ 문화유산 ▲ 자연유산 ▲ 무형유산으로 개편, 각각의 법률 제·개정 완료
* 국가유산기본법(23.5. 제정), 자연유산법(23.3. 제정), 문화유산법·무형유산법(23.8. 개정)
- 국가유산 유형별 관리가 가능한 조직으로 개편(24.5.17, 국가유산청 출범)
* 기획조정관·유산정책국·문화유산국·역사유적정책관·자연유산국·무형유산국의 2관 4국 24과

2 국민 생활과 조화로운 보호정책 추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토지이용관련 규제 혁신 지속(22~24)
- 일률적 500m로 정해진 규제범위를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로, 녹지지역 500m로 조정(총 1,692건 중 1,259건 검토 완료)
-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사전영향협의 제도화, 복잡한 규제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24.2월)
* 「매장유산법」, 「문화유산법」 등의 허가(협의)사항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일원화

3 국가유산 가치 발굴 및 보존

- 국보·보물 등의 다양한 국가유산 지정·등록 지속 확대(131건/23~24)
* 국보(7), 보물(71), 사적(9), 천연기념물·명승(14), 국가무형유산(5), 국가민속유산(6), 등록(19)
- 광화문 월대 복원(23.10.15.)과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개관(23.11.12.),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제자리 복원(24.11.12) 등 중요 유산의 역사성 회복

4 세계 속 한국유산의 가치 확산

- 유네스코 유산 등재 지속 추진으로 한국유산의 국제적 위상 강화
* '가야고분군'(23.9월), '4·19혁명 기록물', '동학농민혁명기록물'(23.5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24.12월) 등재 및 세계유산위원국 당선(23.11월)
- 국외문화유산 환수와 현지 보존·활용 추진*, 국가유산분야 ODA의 확대(22년 36.7억원→24년 131.1억원) 로 국민 자긍심 제고
* 프랑스국립도서관 '직지' 공개 특별전(23.4월),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미국 사적지 등재(24.9월) 등

→ 국가유산 체계의 본격 시행 및 조직개편에 따라 국가유산의 유형별·전문적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유산이 국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모색 필요

II. 2025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 추진 여건

□ 국가유산 대상과 범위 확장에 따른 다양한 역할 기대

- (제도개선 요구 증대)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유형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 고도화 필요

* 보존과 규제, 지정유산·문화유산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유산기본법」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자연·무형유산 정책 수립

- (콘텐츠 산업 수요 증가)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디지털 데이터 플랫폼)과 원천자원 수요*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 진흥의 기회로 작용

* '언리얼 마켓플레이스' 등에 배포한 디지털 원천자원 다운로드 수는 '25년까지 145만건으로 예측

지정유산·문화유산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유산기본법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 [기본원칙] 新 가치창출, 국민의 능동적 참여·향유, 지속가능성,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발전

□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 증대

-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 현상으로 무형유산 전승에 위기가 가속화 (보유자 평균연령 75.1세)중이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필요성 증가

* '2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2%로, '25년에 20%, '36년에 30% 초과 전망(통계청 고령자 통계 2024)

- (기후위기 심화) 최근 5년간('20~'24) 풍수해 피해는 569건으로 이전 5년간('15~'19) 대비 133%(244건) 증가하는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 요구

* 국가유산 재난 피해 중 풍수해 피해는 95.1%로 지난 5년간 비중 71.3% 대비 급증

선순환적 무형유산 보호 제도 마련, 기후위기에 대한 예방적 보호체계 구축 등 정책환경 변화에 긴밀하고 능동적인 대응 추진

□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에 대한 요구

- (개발과 보존의 균형) 규제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면서 개발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능동적 규제혁신 방안으로 정책전환 필요

* 사적·고도·역사문화권 등 공간·면 단위 유산을 전담하는 역사유적정책관 신설('24.12.31.)

- (포괄적 보호정책 수요) 예비문화유산 공모*, 천연기념물 산양 집단 폐사 등 넓어진 국가유산 분야의 보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

* 총 246건 13,171건 접수('24.2~5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7,337명 중 80%가 제도 공감

당위적인 보존과 규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과 공존할 수 있는 국가유산 보호 체계의 마련을 통해 국가유산 보존의 지속가능성을 추구

□ 국민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국가적인 자산

- (경제적 파급효과) 궁중문화축전과 세계유산축전 등 증가하는 국가유산 향유 수요는 관람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
 - * '24년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이 8월까지 10만부가 조기 소진되는 등 국가유산 향유에 대한 높은 수요
 - * '24년 활용사업 모니터링 결과 궁중문화축전 559억원, 세계유산축전 465억원 등으로 평가
- (소멸지역의 버팀목) 지난 5년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율(1.3%)보다 국가유산증가율(1.9%)이 높으며, 국가유산 역할에 대한 기대감 형성
 - * 38개 지자체의 인구정책담당 등 공무원 대상 조사 결과, "국가유산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기금 활용 사업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률 88%(조사기간 : '24.10.23.~11.8.)



국가유산 대표 활용 프로그램의 브랜드화와 지역별 확산으로 국가유산을 경제 활성화 등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자산으로 활용

□ 세계인과 함께 누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국가유산

- (가치 확산) 국가유산채널 유튜브(구독자 173만명) 해외 이용률 65%(연 2천만회), 궁궐·조선왕릉 외국인 관람객은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나 국제적 관심 증가
 - * '24년 궁능 외국인 관람객은 전년 201만명 대비 58% 증가한 318만명으로 '19년 258만명을 상회
- (국제적 영향력 증가) 세계유산위원회 유치 기본계획 수립('24.10), 유네스코 무형유산기금 신규확보 등 국제적 네트워크 기반 강화
 - * 중국의 조선족 유산 지정(돌솥비빔밥 등), 일본의 한국인 강제동원 역사시설 세계유산 등제도 지속 중



민관협력을 통해 우리 유산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제협력 다각화로 국가유산의 가치를 공유 및 확산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긍심을 제고

2 비전 및 추진과제

비 전	국민과 상생하는 국가유산, 높아지는 국민행복
가 치	△ 미래 · 지속가능 △ 보호 · 전승 △ 향유 · 배려
핵심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가치창출 기반 마련 ② 촘촘하고 안전한 포괄적 보호체계 구축 ③ 모두가 함께 누리는 국가유산 향유 ④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한국유산의 세계화

III. 2025년 핵심 추진과제

1.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가치창출 기반 마련

① 국가유산 정책 고도화로 국가유산 체계 확립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5개년 계획 마련 ('25.12월)과 자연유산 유형별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정계획 최초 시행
 - * 생애주기별 보호체계 확립 및 기능을 수행을 위한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 (전승자 인정제도 개선) 전승교육사의 자격 요건을 폐지하여 다양한 전승자를 충원하고, 명예보유자 제도를 개선하여 **선순환적 전승체계 구축**
 - * (전승교육사) 5년 이상 이수자로 제한된 자격을 일반전승자까지 확대(무형유산법 개정 중)
 - * (명예보유자) '무형유산 명인(가칭)' 제도를 도입, 전승활동이 어려운 전승자가 아니라 전승 공헌도가 높은 전승자를 선정하고 예우지원 확대(연구용역 추진 및 개정안 마련/'25.상~)
- (국가유산위원회 신설) 「국가유산기본법」 등을 개정하여 유형별로 분리·운영 중인 3개 위원회(14분과)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
 - * '26년 상반기 국가유산위원회 출범 일정에 맞춰 '25년 기본법 및 관련 3법 등 제개정 추진

② 국가유산 산업 육성으로 미래 부가가치 창출

- (연구개발 계획 수립) 과학적·산업적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제2차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26~'30)' 수립
 - * ('25.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기술 고도화
AI, IoT,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가유산 보존·복원 기술 고도화

협력기반 강화
국가유산 보존·복원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R&D 관리체계 강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관리범위 확대에 대응한 관리체계 강화

비전
첨단 과학기술과 민간 협력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유산 경쟁력 강화

목표 국가유산 첨단기술 고도화 및 개방형 생태계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 (제도적 기반 마련) 「국가유산기본법」 제27조(산업 육성)의 구체적·체계적 정책 마련 위한 「국가유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25.하반기)
 - * (주요내용) 정의·범주, 정보체계, 연구개발, 인력지원, 국제협력, 디지털콘텐츠 등
- (산업조사) 특수분류*에 따라 종사자수 1인 이상의 사업체 2,200표본 대상 국가유산산업 현황 조사('25.2.~12. 조사, '26.2. 공표, 2억원)
 - * (특수분류 구조) 4개의 대분류(국가유산 보존관리업, 국가유산 관련 제품 제조업, 국가유산 여가매매 및 기타 서비스업, 국가유산 교육 서비스업), 11개의 중분류, 21개의 소분류로 구분
- (부가가치 창출) 국가유산 3D 원천자원(에셋) 글로벌 보급으로 게임·영화 등 제작 활성화를 지원하고, 현대적인 전승공예품 판로 개척* 추진
 - * 전승자-디자인 컨설턴트 협업 전승공예품 제작 및 발굴, 온라인몰 입점 홍보 등

③ 규제 합리화를 통한 국가유산과 지역의 상생 발전

- (영향진단제도 시행) 도시계획 등이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규제절차를 일원화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25.2월)
 - * 개발예정지역의 매장유산 지표조사·유존지역 협의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동시 실시, 영향이 없으면 허가 의제함으로써 국민 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하위법령 마련 및 시행)
- (규제범위 조정) 일률적 500m로 정해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규제범위를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로, 녹지지역 500m로 조정
 - * 총 1,692건 중 1,259건 검토 완료('22~'24), '25년 전남·경남 등 433건 검토 추진(지자체 협의 후 관련 고시 개정)
- (발굴조사 지원 확대)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 국가지원 한도 상향*으로 서민·영세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지표조사 전면지원 실시(198.7억원)
 - * 표본·시굴조사 전액 지원, 정밀발굴조사는 최대 1.5억원에서 3억원까지 상향

<사적 수원화성 규제범위 해제>



④ 국가유산 보호와 조화로운 지역정비 및 진흥

- (고도 이미지 찾기) 주민지원을 통한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매력 넘치는 고도 조성(40억원)
 - * 한옥 최대 1.5억원, 근현대 건축자산 최대 1.3억 지원
- (역사문화권정비 본격추진)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문화권정비법」에 근거하여, 2차년도 역사문화권정비 선도사업 추진(100억원)
 - * 역사문화권정비 선도사업(강릉, 나주, 함안, 해남)의 기본·실시설계 및 사업 착공
- (주민지원 체계 마련) 사적·명승 등을 중심으로 경관개선 추진(남원읍성 등 5개소, 20억원)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 * 시·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25.12월)
- (주민주도 사업) 고도 주민 활동사업(마을해설사 양성 등, 1.6억원) 및 전수교육관 프로그램*(45개소, 13.6억원) 참여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 * 전수교육관 운영 관련 문제점 진단·환경 분석을 토대로 전수교육관 혁신방안 마련('25~'26)

<'SNS 핫플레이스' 경주 황리단길>



2. 촘촘하고 안전한 포괄적 보호체계 구축

1 문화유산 유형별 보존체계 마련

① 문화유산의 가치 발굴과 수리제도 개선

- (지정·등록 확대) 보존가치가 높은 유산에 대한 지정·등록 확대하고, 신규 분야 발굴을 통해 균형 있는 지정을 추진

❖ (국보·보물) 광복 80주년 계기 항일독립 건축유산(조적·콘크리트조 등) 가치 조사
❖ (사적) 생산(제철유적), 생활(의료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잠재된 지정조사 계획 수립
❖ (민속·근대) 사회생활, 생업 분야 / 해양, 외교, 산림, 보훈 등 다양한 분야로 외연 확장

- (수리제도 개선)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품셈·시방서 마련, 근현대 부동산유산 필수보존요소 도입 및 전통건축 수리 품질제고* 추진
* (참여설계) 실측설계업자가 설계부터 준공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등 추진
* (직접수리)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국가유산에 대한 직접 수리 방안 마련

②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한 보존관리의 과학화

- (연륜연대 및 수종분석) 목조 건축유산 부재별 과학적 조사로 역사성 분석 및 이력 관리체계 구축(주요부재 샘플 채취·분석 → 3D도면 등 탑재/5억원)
* 조사대상 선정 및 기초조사, 시범사업 실시(10여건) → 연차별 추진 및 데이터 관리('26~'29년)
- (기록화 등 원형자료 구축) 건조물 정밀실측(16.7억원), (불교)동산유산 정밀조사(10.3억원) 등으로 문화유산의 수리·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③ 비지정유산에 대한 조사 강화 및 미래자원 발굴

- (목록화) 보존 가치가 높은 예비문화유산의 발굴·선정*, 불교문화유산 일제조사(천개, 승탑·탑비 등)로 국가유산 지정·등록의 기초자료 마련
* 분야별(생활, 산업, 과학 등) 목록화 5개년 계획 수립으로 10,000여건 목록 확보('25~'29년)
- (역사문화권 자원 발굴) 비지정유적 발굴을 확대(탐라문화권 추가), 문헌·설화 등을 조사·연구*하여 문화권별 정체성 규명 및 활용자원 확보
* 역사문화권별 각 지역 고대 향토유산 조사·연구 계획수립('25) 및 본격 추진('26)

④ 원형보존 및 복원을 통한 가치의 진정성 확보

- (중요유산 보수정비) 세계유산, 국가지정·등록유산 등의 가치보존을 위해 연구와 고증 등을 거친 보수·복원 추진(5,509억원)
- (궁능의 역사성 복원) 4대궁, 종묘·사직단, 조선왕릉 등 궁능 문화유산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복원사업 지속 추진(411억원)
* (경복궁) 영훈당 권역 복원 (창덕궁) 돈화문 보수, (종묘) 정전 보수 완료, (왕릉) 석물 보존처리

2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유산 보존 관리

1 동물유산 개체 및 서식지 집중관리로 종 보존 강화

- (정기조사 실시) 전국 분포 천연기념물 동물 종 대상 첫 시행(개체수, 분포도 및 서식밀도 등 조사) 및 표본 박제 DB구축(4.8억원)
- (관리단체 지원) 동물관리단체 추가지정(사향노루, 어류 등)과 구조활동 강화
* 산양 대량폐사 방지 등을 위한 관리단체 지원 추진
- (서식환경 개선) 동물유산 서식 환경변화 분석 및 서식환경 개선정비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서식환경 개선, 번식지 복원 등 69건(~'25.12월, 74억원)

2 식물유산 유형별 보호·관리체계 고도화

- (식물 상시관리 강화) 1자연유산-1식물병원 체제(주치의 제도) 도입, 치료이력관리제 등 예방적 보호·관리 추진(232건, 52억원)
- (식물보호분야 품셈개정) 신기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식물보호분야 수리 품셈 및 표준시방서 개정, 식물 상시관리 품셈 기준 마련
* 28개 공종 → 36개 공종 / 품셈현실화 / 식물보호분야 노임단가 공표

3 명승 및 천연보호구역, 전통조경분야 관리체계 재정비

- (명승 지정기준 및 분류체계 정비) 국제기준 고려한 지정기준 및 분류체계 정비(근현대 경관 등) 및 유형별 관리계획 수립 지침 마련
* 명승 지정과 분류체계 정비 하위법령 개정(안) 및 유형별 관리방안 마련(1.5억원)
- (전통조경 표준모듈 개발) 한국 전통정원 진흥·보급을 위한 공간 구성요소 및 조합방식 등 모듈 개발과 지침 마련
* 국내외 한국전통정원 조성 동향 분석, 전통조경공간 표준모듈 및 지침 마련(5.2억원)

4 매장·비지정 지질유산 보호기반 마련

- (관련 법령 개정) 자연유산이자 매장유산인 지질유산의 특성에 맞는 보호·관리를 위해 현행 고고유적·유물 중심의 매장유산법령 개정 추진
- (매장 지질유산 보호) 긴급조사·보존처리 및 유존지역 분포지도 구축
* (긴급조사 등) 통영 육식공룡알등지 화석 긴급조사, 포항에서 발견된 대형 나무화석 보존처리 등
* (분포지도) 비지정 지질유산 약 509건 중 '25년 강원충청권 40여건 추진('22~'24년 196건 완료)
- (지질유산 국가관리체계 확립) 개인·기관이 보관 중인 미귀속 지질유산 표본 전수조사(약 8천점 DB등록) 및 국가 귀속(1천여 점) 추진(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유인책 마련 병행)

< 공룡골격화석(경북대) >



3 무형유산 전승체계 안정화와 창조적 계승

1 포괄적 보전 및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 (지정 대상 다양화)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야(구전전통, 자연·우주지식 등) 연구·지정 및 국립기관 전승종목의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비지정 목록화 및 지원) '지정 전'부터 포괄적으로 보전하는 방안 마련 및 잠재적 가치가 있는 종목 지원으로 전승단절 방지(25건, 11억원)

2 역량 있는 차세대 전승자 육성

- (전승경로 확대) 보유자의 도제식 교육 이외에, **공교육*** 등을 통해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춘 **청년 전승자 발굴·양성**
* 전수교육학교 진입 장벽 완화 : (기존) 대학 1·2 학년 → (개선) 3·4 학년까지 확대
- (활동지원 강화) 역량이 뛰어난 '올해의 이수자'를 **선발***하여 전승을 촉진하고, 매년 증가하는(연 200여명) 이수자들의 **공연·전시 지원 확대(7.8억)**
* '이수심사 운영위원회'에서 국가무형유산 지정 범주별 선정(안) 검토
- (우수 이수자 확대) 전승활동이 우수한 이수자가 장려금 지원(16.7억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무형유산법 개정*** 추진
* 현재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만 가능한 우수 이수자 추천권자에 전승교육사 추가

3 맞춤형 전승자 인정제도를 통한 인적전승의 공백 방지

- (미래보유자 발굴·육성) 기존 전승자에서 보유자 충원이 어려운 보유자 장기 부재종목에 대해 **대국민 공모**로 예비전승자를 선발, 교육 지원
* '25년 바디장 종목을 대상으로 실시, 공모('25.1월) → 선발('25.2~3월) → 교육(연중/'25~'27)
-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특례) 보유자 장기 부재 종목의 전승자 인정 조사 응시요건 **완화***, 전승자 역량강화 컨설팅 및 전승 활동 지원 강화
* 보유자 추천 대신 무형유산위원회 의결로 전승교육사 응시기회 부여(나주 셋골나이 등)

4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전승 여건 조성

- (취약종목 활성화) 수요 부족으로 전승이 취약한 종목에 대해 **공급별 공예품 제작·활용**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전통공예 재료 **수급체계*** 구축

장소	경복궁('25)	덕수궁('26)	창경궁('27)	창덕궁('28)
내용	생과방 공간연출·도구제작	돈덕전 아카이브실 전시연출	집복헌 전시연출	궐내각사 전시연출

* 전승공예품 재료지원 시범 운영(옷, 천연안료), 실태조사 및 재료 보호기반 연구 등 추진(2억원)

- (전승공예품은행 활용확대) **작품구입*** 및 대여절차 개선(6단계 → 3단계), 국내 기획대여 및 재외공관 대여 적극 유치, 전승공예품의 실사용 등 추진
* (기존) 보유자작품전 등 제한된 범위에서 구입 → (개선) 공모 및 추천 등을 통해 필요작품 구입

4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1 국가유산 체계를 담은 재난·안전관리 제도 마련

- (법률 제정) 문화·자연·등록유산을 포함하는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새로운 국가유산 재난안전 정책 마련(25.상반기 발의)
* 「문화유산법」에서 재난안전 분야 분리 및 기후변화대응, 재난안전환경조사, 긴급안전조치 등 신설
- (매뉴얼 정비) 「국가유산 및 보호물 보호구역 재난 표준 매뉴얼」 제정(25.1월) 및 「화재 등 재난대응 가이드라인」 개정 등 위기대응 지침 마련
- (포괄적 관리기반 마련) 국가지정(등록)유산 정기조사와 돌봄의 연계를 통한 생애주기 관리 지원 및 비지정유산 돌봄 관리대상 선정기준 마련*
* 시·도별 돌봄사업 관리대상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절차 도입

2 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및 인프라 구축

- (인적훼손 대응) 통합 상황관리 체계 구축* 및 상시적 돌봄활동 확대, 방법 시스템 확충 등 인적훼손 대응시스템 강화(31억원)
* (안전방재과) 상황·통계관리 총괄, (소관부서) 국가유산 유형별 대응 및 복구대책 마련
- (방재인프라 지속 구축) 화재에 취약한 목조 국가유산 대상 소방·전기 시스템 구축(48건, 50억원) 및 안전경비원 배치(613명, 104억원)

3 기후변화 대비 예방적 대응체계 마련

- (사전조사) 국가유산 보호구역 내 사면·계곡부 등 풍수해 위험 지역 실태조사, 보호 방안 마련(9억원) 및 안전관리 사전연구* 실시
* 재해위험도 평가 등 현장조사표 개발, 재해위험징후 감지시설 구축 및 점검방법 등
- (기술개발 연구) ‘국가유산 피해회복 기술개발(6개 과제, 31.3억원)’ 및 ‘국가유산 적응관리 기술개발(3개과제, 10억원)’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 석조 문화유산 복원강화, 금속 문화유산 부식저감, 노거수 목질부 표면보호제 개발 등 3건 신규 추진
- (신기술 적용 확대) IoT 기술을 접목한 건축유산 상시모니터링 강화*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식물·자연경관 조사에 방재드론 활용 확대(26~)
* 상시계측기 설치 및 측정값 실시간 수집, 추이 분석 등 재해 예방(기준 마련 및 시범설치 5억원)
- (유전자원 보존) 동식물 유전자원 동결·저장 및 유전자 연구 추진
* (동물) 축양동물 유전자원 확보 6종 10두 1,200점 및 원앙·남생이 유전자 특성 연구
* (식물) 단양 소백산 주목군락 등 25개체 유전자원 영구저장 및 정아품송 등 소나무 10건 유전체 작성

3. 모두가 함께 누리는 국가유산 향유

① 국가유산 활용 콘텐츠 확산으로 문화향유 증진

-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경험을 중시하는 3040세대의 특성을 고려, 방문자 여권 편의성 개선*으로 능동적인 국가유산 체험 추진(63억원)
* 배부수량 확대(월 2회, 총 24만부), 거점관리 강화(활동가 운영), 거점프로그램(이벤트) 확대
- (대표 브랜드 육성) 기획력 강화 및 미디어 홍보전략 마련으로, 세계유산 및 국가유산 가치 확산을 위한 콘텐츠의 고품질화*(127억원)
* 세계유산축전 4건(고창·경주·순천·제주), 미디어아트 8건(경주·고령·군산·양산·제주·진주·철원·통영)
- (해외홍보 강화) 2025 오사카 세계엑스포(4.13.~10.13.)와 연계한 전통공연, 미디어아트 전시 등 다채로운 체험, 홍보로 K-heritage 가치 확산(5억원)
* 조선통신사선 한·일 뱃길 재현(4~5월), 전통공연(5.12.~18.), 실감콘텐츠 전시(4~10월) 등
- (궁궐문화 가치 공유) 건청궁·향원정, 경희루 특별관람(4~10월)으로 야간 프로그램(달빛기행 등)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고, 고궁박물관 기획전* 개최
* 창덕궁 대조전·희정당 등 벽화 6점 및 몰입형 실감 영상 콘텐츠 전시, 박물관 보존과학전 등
-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 특별전·공연 개최로 광복의 의미를 국민과 향유

- ❖ (한일 문화유산 전시) 독립운동 관련 지정·등록문화유산을 활용한 기획전시 추진(8~9월)
- ❖ (무형유산 공연) 일제강점기 단절·변형된 무형유산(종묘제례악 등)의 수난과 가치, 애국선열들의 이야기(아리랑, 판소리 등)를 재조명하는 '무형유산으로 만나는 평화누리' 개최(8월)
- ❖ (미디어 월 홍보) 인천공항 입국장 미디어 월 전시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광복의 가치를 공유

② 국민들의 생활 속 쉽게 느낄 수 있는 국가유산

- (일상 체험 확대) 국민들이 언제든지 국가유산을 찾아 향유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운영*(172억원/향교·서원, 전통산사, 고택·종갓집 등 355건)
* 우수사업 5개 선정(예시 : 종가 내림음식), 특집 프로그램으로 특별체험 제공(3억원)
-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운영) 제주지역 전체의 국가유산을 아우르는 신규 관람코스(스토리 연계형·유산 투어형 등 코스) 운영('24년 4개 코스 개발 완료)
- (황룡사지 등 디지털 복원) 멸실된 주요 건축물에 대한 디지털 복원 (AR재현 등) 및 실감콘텐츠 제작·보급으로 새로운 관람 및 체험서비스 제공
* 황룡사 9층 목탑 AR재현 완료('23~'24), 종금당 등 주요건물 디지털 복원 추진('25~'27)
- (자연유산 향유기반 확대) '명승 옛길'(명산·전통정원·옛길 등) 정비·조성 및 한반도 고유 화석종(공룡* 등) 최초 국가 주도 발굴·관광자원화(7억원)
* '24년 정밀 학술조사 결과' 여수 대륙도 일원 해안가 지층표면 4개 지점에서 공룡 골격화석 60점 발견

③ 문턱은 낮게, 사회적 약자 배려로 문화격차 해소

-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기존 수혜대상(장애인, 노인 등) 외, 지방소멸 위기 지역주민·탈북민 등으로 대상 확대 및 운영 세분화로 관람서비스 질 제고(8억원)
* ('24년) 4개 권역, 40회(1,320명) → ('25년) 8개 권역, 80회(2,500명)
- (맞춤형 공궤행사)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정책 수혜대상에 적합한 공궤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에 대한 국가유산 복지 강화

❖ (초청행사) 국가유공자 초청 '경회루 연향', 시니어 전용 '동궤 장원서' 등 신규 운영(3,000명)
❖ (방문행사) 특수학교에 찾아가는 '궁, 바퀴를 달다' 운영(2,000명)
❖ (공능해설) 시각장애인 중심의 특화된 4대궁 및 중요 안내해설 프로그램 운영 확대(120회)

- (이동형 체험관 확대) 인구감소, 교육시설 부족 등 낙후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국가유산 교육체험관 '이여지교' 확대* 운영(100개소, 16억원)
* 지역 : ('24년) 경기북부·강원 60곳 → ('25년) 전남·전북·제주 100곳
대상 : ('24년) 학생, 장애인 → ('25년)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 장년층, 어르신 추가
- (공궤 예매서비스 개선) 인기가 집중되는 활용 프로그램 대상, 추첨제 확대를 통해 선착순 티케팅 과열로 인한 디지털 약자들의 불편 해소

프로그램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고궁 생과방, 수라간 시식공감, 덕수궁 밤의 석조전
개선방향	(현행) 추첨제 40%, 선착순 40%, 전화예매 20% → ('25) 추첨제 80%, 전화예매 20% * 전화예매 대상 : 소외계층(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④ 국민과 함께 가꾸고 전하는 국가유산의 가치

- (지킴이 참여 확대) 청소년·청년 등 미래인재 육성지원 강화*, 권역별 거점센터 활성화(7개 → 10개) 등 지역 중심 보호활동 활성화
* 국가유산 진로체험 등 연계 국가유산 현장 봉사활동 지원(청소년학교 25개, 청년지킴이 30팀)
- (민관협력 증진)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 친환경·디지털 분야 협력 추진* 및 지속가능한 가치창출 거버넌스 확장(후원약정 확대)
*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산양) 보호 협력, 국가유산 디지털 복원·체험(왕실의복 시피팅체험 등)
- (재외국민 포용) 교육 콘텐츠, 전문강사 등 국가유산교육 여건이 열악한 재외국민 교육기관 방문, 국가유산교육 지원(시범 1곳, 2억원)
- (어린이 교육) 역사 전문가가 어린이들과 함께 전국의 국가유산을 찾고 배우는 과정을 흥미 있는 콘텐츠로 제작, EBS 등 송출(8편, 4억원)
* (주제) 9대 역사문화권, 고구려·백제·신라·고려·조선, 국외소재유산, 무형유산 등

4.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한국유산의 세계화

① 유네스코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 체계 마련

- (등재 지속 추진) 세계유산 신규 등재 신청 준비(한국의 갯벌 2단계, 한양의 수도성곽), 차기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공모·선정('25.4월)

- ❖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등재 결정('25.7월)
- ❖ (세계기록유산) '산림녹화기록물', '제주4·3사건기록물' 등재 결정('25.4월)
- ❖ (인류무형유산) '한지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 등재심사 대응('26.12월 등재 예상)

- (등재후보 발굴) 예비잠정목록 발굴* 및 기존 잠정목록 재검토 등 제도개선을 통한 전략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신규 후보군 유형 : 근대유산·기억유산(소록도, 항구도시 인천), 자연유산(울릉도) 등

- (영향평가 운영)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 평가항목·검토기준 및 세계유산지구 지정 절차 마련

- (보존관리 내실화) 유네스코 정기보고와 「세계유산법」에 따른 정기 점검을 연계*하고, 지역민이 참여하는 홍보·활용 사업 추진(27억원)

* 세계유산 관할 시·도지사가 각 유산의 보존·관리 상태 연례 점검 및 국가유산청 보고

② 정보·가치 전파 및 국제교류로 한국유산 인식 제고

- (정체성 확립) 글로벌 이슈 관련 우리 유산을 연계한 다국적 연구와 신진 학자 지원으로 지한과를 양성(9억원)하고, 문화공정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 트랜스내셔널 국제 공동연구팀 본연구('25~'27), 신진학자 한국유산 연구지원('25~'26) 등

- (글로벌 접근성 강화) 우리 유산의 가치를 구현하는 영문 기획도서의 해외 플랫폼 유통(아마존 등/10월) 및 해외 전시*(10~11월) 개최(5억원)

*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10월) 출품, 미국 북 콘서트 등 개최(11월) 등

- (국가유산 글로벌 홍보) 글로벌 콘텐츠 제작(60편, 27억원) 및 미디어 플랫폼(유튜브 외) 협력 다각화를 추진하고, 각 유산별 국제교류 확대

* 디스커버리 등 협업(시범사업 3억원) 및 다국어(스페인어, 아랍어 등) 제작

- ❖ (문화유산) 기관단위 국외반출(일시반출) 허가제 도입 및 문화유산 연구교류 중장기 계획 마련
- 조선통신사선 한일 벅길재현(목포-오사카) 및 동아시아 왕실문화교류, 세계의 고고학 등 학술대회 개최
- ❖ (자연유산) 글로벌 협업(월트디즈니 등) 및 국외전시 추진(주영한국문화원 전통조경 실감형 콘텐츠 전시)
- ❖ (무형유산) 재외동포 무형유산 교육 협력 및 국제공연 국가 다양화 추진
- (재외동포청 협업) 재외동포교육 대상국가(캐나다, 뉴질랜드, CIS 등) 업무협약 및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무형유산축전 개최(10월)

③ 국외소재유산의 다각적 환수 및 가치 보존·활용

- (환수기반 조성) 실태조사 확대, 모니터링 강화, 해외 거점사무소 활용 등으로 체계적인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여건 조성

실태조사 확대	• 미국 시카고 필드자연사박물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한국 문화유산 실태조사 • 미국 6개 기관(피바디에섹스박물관 등), 일본 2개 기관(쓰쿠바대학도서관 등) 조사('26~'29)
모니터링 강화	• 전 세계 유통시장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대상 결과 공유 → 사안별 협업 추진
해외 거점 사무소 활용	• (일본) 한국 문화유산(서도전집), 유통현황(도쿄, 교토 등 5대 미술클럽 아트페어) 조사 등 • (미국) 주요기관 소장자료(시카고박물관 관련) 조사, 공사관 관련 자료(석거서행록초) 연구 등 • (유럽) 주요기관(프랑스 대학언어문명도서관 등) 소장자료 조사·연구 지원 등

- (맞춤형 환수 추진) 해외소재 주요국가(일본, 미국, 유럽 등) 대상, 국가별 특성에 맞는 환수 전략 강화

* (미국) 양자협정 체결을 통한 불법반출 모니터링·수사공조 추진, (일본) 외교부 협상 지원, (유럽) 유럽사무소(파리) 개소에 따른 유럽지역 네트워크 구축

- (현지 보존·전승 강화) 국외소재 국가유산의 가치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 (문화유산) K-공유유산(상대국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현지 보존·활용 본격화 - 고려미술관(일본) 운영 지원, 프랑스 국립도서관 및 독일 로텐바움박물관 소장 한국유산 조사
❖ (자연유산) 해외 한국전통조경공간 현황파악 및 조성·관리, 협력망 구축방안 마련 등 추진(민간협업) - 해외진출 기업 협업 한국전통조경공간 정비사업(독일, '25~'26) 및 조성사업(일본, '25) 검토·추진
❖ (무형유산) 국외 전승 중인 한국 무형유산의 가치 확산을 위해, 전승단체 지도자급 초청 연수 운영 - 중앙아시아 재외동포(고려인) 무형유산 초청연수 개최(10월)

④ 국제기구 협력 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

- (세계유산 ODA) 유네스코 대표유산을 대상으로 ODA를 추진하여 한국의 유산 보존·활용 기술의 국제사회 전파 및 국격 제고

*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이집트 람세스2세 장제전(라메세움 신전) 탐문 보존·복원 추진 및 페루 마추픽추 보존·복원 추진을 위한 MOU 체결

- (한-아세안 협력) 아세안 국가들과 협의체 운영(연 2회), 대사단 초청 간담회 등(2억원)으로 아세안 공동의 유산(쌀문화 등)에 대한 가치 증진

- (세계유산위원회 유치) 대한민국 최초로 2026년에 열리게 될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유치하여 우리나라의 선도적 리더십과 위상 강화

* 국제행사 개최 기재부 심의 및 유치도시 공모('25.상반기), 개최 확정(7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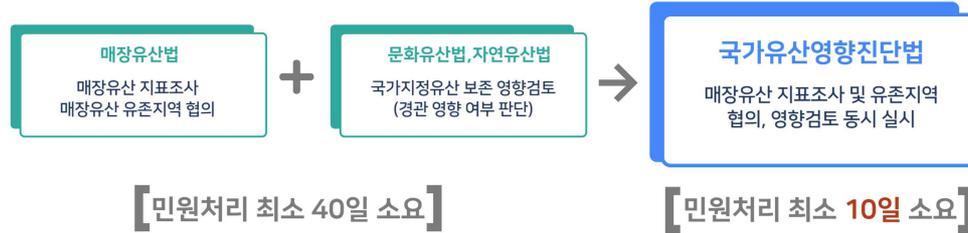
- (유네스코 협력 다각화) ICOMOS 아태지역회의 개최*('25.4월) 및 국제기구 신탁기금 공여(36.6억, 무형유산기금 10억원 신설)로 대외경쟁력 향상

* 세계유산 영향평가, 세계유산 해석·설명 분야 사례 공유 및 협력방안 모색 등

IV.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규제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가유산영향진단' 제도 시행

- 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시, 복잡하고 이원화된 허가절차를 영향진단으로 간소화



□ 역사문화권정비 선도사업으로 지역 정주환경 개선

- 역사문화권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36억원)
- 사업착공 : 총사업비 4개소 485억원
 - '26년 완료 시, 국가유산 주변 정주여건 개선 및 주요 유적 간 연계 역사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 기대
 - * (대상) 강릉(초당동), 나주(복암리), 함안(말이산), 해남(읍호리) 유적
 - * (경제적 효과) 4개 정비사업 총 경제적 효과 1,233억원



<함안 말이산 고분군 정비사업 대상지>

□ 국가유산 인적훼손 예방 및 대응 강화

- 돌봄활동 확대로 상시 관리체계 강화
 - 모니터링 강화, 인적훼손 현장 조속 투입, 신속한 경미보수 등 원스톱 관리
- 관리감시 취약지역 방범시스템 강화
 - 방범설비 미설치 1,134개소에 CCTV 및 IoT시스템 확대 설치



□ 국가유산 향유 서비스 확대

	기존	신규·확대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배부 (월 1회, 회당 5,000부)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배부 (월 2회, 회당 10,000부)
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서비스 확대 운영	(권역) 4개 권역 (횟수) 40회(1,320명) (대상)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보호아동	(권역) 8개 권역 (횟수) 80회(2,500명) (대상)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보호아동, 탈북민, 지방소멸위기 지역주민 등 확대
사회적 약자 배려 국가유산교육 어린이	수혜기관 60곳 (벽지학교, 복지기관 위주)	수혜기관 100곳 (장년층, 어르신, 재외동포 등 확대)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제작 보급	-	신규 10편 제작 (역사전문가+흥미+스토리)